

## 연령집단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비교

정순돌\*  
(이화여자대학교)

성민현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각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과 함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전국 15개의 시도를 중심으로 연령, 성별로 층화하여 표본 할당 및 조사 대상을 추출하였다. 표본은 20~44세 406명, 45~64세와 65세 이상에 대해 각각 405명씩 할당 표집하였고, 총 1,216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삶의 만족도 평균은 각 연령집단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노인층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 변인들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들로 나타났는데 연령대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자본은 각 연령별로 영향을 미친 하위요인이 다르게 나타나 각 연령대별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연령별로 찾아보았다.

주요용어: 삶의 만족도, 사회적 자본, 연령집단

이 논문은 2010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09).

\* 교신저자: 정순돌, 이화여자대학교(sdchung@ewha.ac.kr)

■ 투고일: 2012.10.31    ■ 수정일: 2012.11.28    ■ 게재확정일: 2012.12.17

## I. 서론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는데,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후 2050년도에는 28.2%로 늘어나 세계평균 16.2%보다 두 배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09).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양적 성장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질적인 부분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정순돌·이선희, 2011). 질적인 부분의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인 측면보다는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양적인 면보다는 삶의 질을 더 강조한다. 최근 삶의 질 연구들을 살펴보면 과거 건강, 소외, 경제, 가족문제 등에만 치중하던 것과 달리 삶을 즐겁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여가생활과 안락한 노후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같은 욕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정규, 2009; 신상식·최수일, 2010; Kudo 외, 2007; Chen, 2000).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안희정, 2000; 이기홍, 2005; 주경희, 2011).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76.6%로 전체 가구빈곤율 14.6%의 다섯 배를 넘는다(통계청, 2012). OECD(2009)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74세 이하 노인 자살률은 81.8명으로 OECD국가에 비해 5~6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은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 또한 World Value Survey(2012)의 노인에 대한 사회적 존경조사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81.1%가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3개국 중 1위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에서 길어진 노후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 삶의 질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젊은 세대의 삶의 만족도는 높았다가 중년기에 낮아지고, 다시 노년기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김의철, 2000; Chen, 2000; Angelini 외, 2012). 그러나 이와는 달리 삶의 만족도가 반드시 노년기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가 될수록 더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권중돈·조주연, 2000; 이기홍, 2005; Fitzroy 외, 2011)도 있다. 외국의 경우 객관적인 연구에서 나타나는 노인들의 정신건강 만족도나 삶의 만족도는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udo 외, 2007; Aureli & Baldazzi, 2002; Ford 외, 2012).

한편,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이기홍, 2005; 이정규, 2009; Bjornskov, 2003; Powdthavee, 2008; Mammen 외, 2009; Vemuri 외, 2011). 사회적 자본은 사회나 개인과의 관계에 따라 생성되는 자원(Bourdieu, 1986; Coleman, 1988; Lochner 외, 1999; Ports, 2000; Costa & Kahn, 2001; Healy, 2005; Burt, 2007; 박희봉, 2002; 장유미, 2011)으로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들이 맺는 관계에 내재하는 자원임과 동시에 타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Newton, 1997).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강현정, 2009; 이기홍, 2005; 이정규, 2009; 신상식·최수일, 2010; Bjornskov, 2003; Powdthavee, 2008; Mammen 외, 2009; Vemuri 외, 2011)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사회참여, 네트워크, 신뢰 등 일부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나 단체활동, 교육 등에 참여하고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의 관계나 지지가 이루어질 때 삶의 만족도가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 수준과 전반적인 사회적 자본의 요소와 연결시킨 연구는 거의 없으며, 사회적 자본 중 구성요소인 사회참여, 신뢰, 네트워크 등 일부 요소만 선택해 고찰하였거나 구성요인을 세분화하여 거시적·미시적 신뢰나 사회참여, 유대나 연계로서의 네트워크와 같은 식으로 나누어 본 연구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강현정, 2009; 이기홍, 2005; Pugno & Verme, 2012; Cuypers 외, 2012). 또한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연령집단별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연령별 차이에 관련한 자본의 차이에 대해 주목하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44세, 45~64세, 65세 이상 등 세 집단이 가진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대한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는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연령별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가 삶의 만족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해 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II. 선행연구

###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생활만족도, 삶의 질, 심리적 안녕상태, 행복감 등의 용어와 혼동되게 사용되어온 개념으로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정의로 사용되고 있다(정순돌, 2003). Neugarten 등(1961)은 생활만족도라고 표현하면서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긍정적인 자아관념을 가지고 자신의 현재 약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정혜정 외, 2000: 51, 재인용). Havighurst와 그의 동료들(1968)은 삶의 만족도를 현재의 지위와 활용에 대해 갖고 있는 정서적 만족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정순돌, 2003, 재인용). 학자들에 따라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주관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만족도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들 자신만의 잣대와 비교하여 스스로가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해 판단이나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Mammen 외, 2009; Worsch 외,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 관점을 바탕으로 삶의 만족도는 인간의 전반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행복이나 즐거운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개인 내적으로는 자아성취와 같은 목표달성과 개인 외적으로는 사회적 수용과 안정감 등에서 오는 만족스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삶의 만족도를 위와 같이 정의한다면, 삶의 만족도는 각자의 삶에 있어 관심의 초점이 되는 영역들에 의한 만족감으로 수렴되는데 이는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정명숙, 2005). 예를 들면, 80대 노인은 30대 성인과 같은 수준의 객관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80대 노인 자신의 건강 상태와 동년배의 건강상태와 비교하여 자신의 건강상태가 더 좋다면 훨씬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Worsch 외, 2003). 한편, 우리나라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는 2.84점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수준이나 이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정명숙, 2005), 외국의 경우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3.85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여가나 미래에 대한 기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achman. 외, 2008). OECD 조사결과(2011)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53.0%로 OECD 평균인 75.5%에 비해 22.5% 포인트 낮

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중년층의 삶의 만족도는 2.96점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명숙, 2005). 외국의 경우 삶의 만족도는 3.91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이나 경제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achman, 2008) OECD 조사결과(2010)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년층의 삶의 만족도는 64%로 미국 86%에 비해 22%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우리나라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는 3.24점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명숙, 2005). 외국의 경우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4.09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이나 경제수준 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achman, 외, 2008).

한편, 연령집단을 모두 고려하여 삶의 만족도를 살펴 본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김의철 외(2000)는 연령집단별, 성별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 남자는 생활만족도가 높지만 성인 남자는 하강적 변화를 보였다가 노인이 되면 다시 생활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U자 곡선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달리 청소년과 성인 여자는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지만 노년기가 되면서 점차 높아지는 형태로 나타났다. 연령집단별 삶의 만족도는 청장년층의 경우 직장생활, 가정적인 책임, 사회활동이나 관계와 같은 요인의 영향으로 삶의 질이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노인이 되면서 자기조절 대처 및 회피대처가 높아지면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의철 외, 2000; 정순돌·이현희, 2012; 정명숙, 2005; Chen, 2000; Angelini 외, 2012). 즉,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각각의 연령집단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 따라 만족도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며, 각 집단에서 나타나는 환경과 복합적인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포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 2. 사회적 자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Coleman, Putnam, Bourdieu 등이 있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원은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보통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포함된 다양한 복합체이다. 이들은 사회구조의 여러 측면을 구성하며, 구조 내 행위자의 특정한 행동은

촉진시킨다.”고 정의하였다. Bourdieu(1986)은 “상호 친근감이나 인지가 적게 혹은 많게 제도화된 관계의 소유와 연관이 있는 실제적인 혹은 가상적인 자원의 집합체”라고 하였다. Baker(1990)는 “특정 사회구조와 행위자들 간의 관계 변화에 따라 생성되는 관심영역에서 비롯된 자원”이라고 정의하였다. Burt(2007)는 사회적 자본은 경험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잘 연결된 경험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유리하다고 하였다.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사회적 자본은 형태가 없는 가상의 자원이며, 하나의 집합체로서 사회나 개인과의 관계에 따라 생성되는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 자체를 종합적으로 사용하기보다 주로 구성요소 몇 개를 중심으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Putnam(1995)은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는 사회적 유기체의 형태를 띠며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조직과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요소로 보았다. 네트워크, 규범, 신뢰는 여러 연구(Bourdieu, 1986; Coleman, 1988; Lochner 외, 1999; Ports, 2000; Costa·Kahn, 2001; Healy, 2005; Burt, 2007; 박희봉, 2002; 장유미, 2011)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사회참여와 사회적 지지, 시민사회, 협력 등도 연구에 따라 사회적 자본으로 보는 연구자도 있다(Bourdieu, 1986; Coleman, 1988; Lochner 외, 1999; Ports, 2000; Casta & Kahn, 2001; Healy, 2005; Burt, 2007; 박희봉, 2001; 장유미, 2011).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으로 네트워크, 신뢰, 사회참여, 규범과 같은 요인을 단편적으로 혹은 몇 개를 결합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홍, 2005; 이정규, 2009; 김태현 외, 1998; 김의철 외, 2000; 박성복, 2003; 김영범·박준식, 2004; 신상식·최수일, 2010; Gabriel & Bowling, 2004; Healy, 2005; Helliwell, 2006).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기홍, 2005; 이정규, 2009; 신상식·최수일, 2010; Bjornskov, 2003). 또한 개인이 갖는 개인적·사회적 네트워크의 수나 종류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현 외, 1998; 김의철 외, 2000; 박성복, 2003, 김영범·박준식, 2004, 신상식·최수일, 2010; Gabriel & Bowling, 2004; Healy, 2005; Helliwell, 2006). 그리고 신뢰가 높을수록 원조의 종류가 다양하고 원조제공자의 수가 많을수록 삶의 질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규, 2009; Helliwell, 2006). 규범의 경우 Healy(2005)는 개인적인 능력과 자유를 제한하여 그들의 선택과 수요, 가치, 기대에 근거하여 긍정적인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실증적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연구들은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 시민적 참여, 규범 등의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이기홍, 2005; 이정규, 2009; 신상식·최수일, 2010; Bjornskov, 2003; Gabriel & Bowling, 2004; Healy, 2005; Helliwell, 2006).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모두 각각의 사회적 자본의 하위영역 중 일부와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고 있어 사회적 자본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정의하고 있는 Coleman과 Putnam이 제시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공통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참여, 신뢰, 네트워크, 규범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연령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년기에는 사회·경제적 역할과 책임이 감소하고 이전까지의 의무로부터 자율감을 확보함과 동시에 역할상실을 경험하는 시기로 사회적 자본인 사회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건강수준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지원, 2006; 서지원, 2008; 이홍직, 2009; 김준홍, 2010). 또한 공식적·비공식적 관계망을 확장하고 유지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상식·최수일, 2010; 이기홍, 2005; 이정규, 2009). 사회참여의 경우 노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태현 외, 1998; 김철수·유성호, 2009; 이정규, 2009; 이경숙, 2011).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 중에서 취미활동, 스포츠 활동 및 자기 계발을 위한 학습활동 등의 생산적 여가활동이나 쇼핑, 시장보기, 영화 및 연극 관람, 사우나, 찜질방 등의 외향소비적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상식·최수일, 2010; Kudo 외, 2007). 한편, 청년층과 중년층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에 대해 연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년층의 경우 social network service(SNS)와 같은 온라인 상의 활동의 증가로 사회적 관계 및 신뢰 형성, 정치적 참여 등의 확대되면서 이러한 활동정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 또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Valenzuola 외, 2009). 그리고 중년층의 경우 대부분 직장활동이 가장 활발할 시기이므로 개인적인 지지와 직장에서의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rcinkus 외, 2007).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각각의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 연령집단을 함께 고려하여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즉 각 연령집단별로 어떤 시기에 어떤 종류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기여하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연령집단에 내재된 사회적 자본의 사회참여, 신뢰, 네트워크, 규범과 같은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연령별로 어떤 사회적 자본의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서베이조사로 설계되었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와 8개 도 지역(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으로,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비확률 표본추출방법인 무작위 할당표집방법을 사용하여 표집하였다. 특히 표집에서 연령을 고려한 이유는 본 연구의 조사목적이 연령별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것이 연령별 삶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표본추출단계는 먼저 15개의 시도를 동 및 읍면지역으로 분리한 뒤, 각 행정구역을 인구크기로 정렬하여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조사 대상 가구는 조사원이 방문한 지역의 동읍면 사무소를 중심으로 첫 번째 집을 기준으로 오른쪽 혹은 왼쪽 인접가구부터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선정하였다. 만일 가구방문을 통해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는 경우 다음 가구에 방문하거나, 인근지역의 대상자를 찾아 조사를 진행하였다. 단, 조사대상자가 1가구에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생일법을 적용하여 생일이 가장 빠른 가구를 선정하여 작성하였다. 자료수집은 2012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훈련된 전문조사원에 의하여 사전 교육 후 1:1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 시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동 지역은 대도시 응답자료로, 8개시도 동 지역은 중소도시 응답 자료로, 8개시도 읍면지역은 농촌지역의 조사 자료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총 1,216명이 사용되었다.

## 2. 측정도구

### 가.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Diener 외(1985)가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ves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SWLS척도는 Diener et al.(1985)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주관적 측면에서의 삶의 만족도에 초점을 두고 측정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내 인생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삶에 가깝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와 같은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각각 “매우 그렇지 않다 = 1”부터 “매우 그렇다 = 7”에까지 이르는 7점 척도로 측정된 리커트(Likert)척도를 본 연구에서는 “매우 그렇지 않다 = 1”부터 “매우 그렇다 = 5”에까지 5점 척도로 환산하였고,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하여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49로 나타났다.

### 나. 사회적 자본

#### 1) 사회참여

사회참여는 개인의 가족이나 친구 집단 등 비공식적 수준에서의 참여와 지역사회, 단체 차원에서의 참여를 의미한다. World Value Survey(2005)의 자발적으로 구성된 단체에 어떠한 형태로 참여하는지를 묻는 10개의 항목과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ing의 단체 혹은 동호회와 같은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을 수정·활용하여 10개의 항목을 사용하여 총 20개의 항목을 사용하여 사회참여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측정을 위해 횡수로 범주화하여 ‘거의 하지 않음’에서 ‘주1회’ 등 6 범주로 나누어 ‘거의하지 않음 = 0’에서 ‘주1회 = 5’로 측정된 값을 합산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세 영역을 합산한 신뢰도(Cronbach’s alpha)는 .798로 나타났다.

## 2) 신뢰

신뢰는 ‘집단이나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와 같이 개인과 집단(가족이나 친구) 차원의 신뢰문항과 지역사회, 단체 및 기구, 사회제도 및 국가에 대한 신뢰정도를 측정하였다. 최근 세대/소득/지역별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SNS 문항을 수정하여 포함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온라인상의 인맥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형 공간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신뢰를 묻는 항목들은 World Value Survey(2005)의 문항들과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된 문항들(홍영란 외, 2007)을 참고하여 총 18개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신뢰하지 않음=1’에서 ‘매우 신뢰함=5’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의 신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42로 나타났다.

## 3)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수많은 행위자들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자원을 주고받는 관계의 특성을 밀도, 즉 구성원의 수를 이용하여 사회적 지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순돌(2005)의 사회 지지망 사정표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가족구성원, 친척, 직장, 모임/교회, 친구, 이웃, 전문적 도움 외에 온라인 공간을 추가하였으며, 지지 대신 도움이라는 표현으로 이하 문맥 따라 수정하였다. 기록한 수를 합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네트워크 수가 많고, 활발하다는 것을 뜻한다.

## 4) 규범

규범은 우리나라 국민의 준법수준과 공중도덕 수준,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영현 외(2006)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법 준수, 법 적용의 공정성, 공중질서에 대한 인식 등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음=1’에서 ‘매우 그러함=5’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리나라 국민의 준법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627로 나타났다.

## 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직업유무, 혼인상태, 최종학력, 주관적 경제 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월 총수입, 거주지역 등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령은 세 집단(20~44세, 45~64세, 65세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의 연령집단별 삶의 만족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 3. 측정방법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8.0통계패키지를 활용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령별 사회적 자본 및 삶의 만족도의 연령별 세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ANOVA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연령별 사회적 자본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중 직업이 있는 대상자가 55.8%로 직업이 없는 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무학이 4.9%로 가장 낮았고, 초등학교 졸업 11.8%, 중학교 졸업 11.3%, 고등학교 졸업 44.3%, 대학교 졸업 27.6%로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소득은 평균 317만원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고,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81.6%,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가 18.4%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직업이 없는 비율이 늘어나고, 학력수준도 낮으며, 월소득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역시 연령이 많아질수록 무배우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가 46.1%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가 34.7%, 농촌이 1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 인구사회학 특성

(단위: 명, %)

항목		20~44세	45~64세	65세 이상	합계
연령	빈도	406(33.4)	405(33.3)	405(33.3)	1,216(100)
	평균(단위: 세)	35.25	51.77	68.91	-
성별	남	211(35.5)	191(32.2)	192(32.3)	594(48.8)
	여	195(31.4)	214(34.4)	213(34.2)	622(51.2)
직업	있음	277(68.2)	270(66.7)	131(32.3)	678(55.8)
	없음	129(33.3)	135(33.3)	274(67.7)	538(48.8)
최종학력	무학	0(0)	4(1.0)	55(13.6)	59(2.4)
	초등학교 졸업	1(2)	14(3.5)	129(31.9)	144(11.8)
	중학교 졸업	2(5)	30(7.4)	106(26.2)	138(11.4)
	고등학교 졸업	191(47.0)	247(61.0)	101(24.9)	539(44.3)
	대학교 이상 졸업	212(52.2)	110(27.2)	14(3.5)	336(27.6)
월소득	평균(단위: 만원)	383.92	365.41	204.26	317.91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263(64.8)	395(35.2)	334(82.5)	992(81.6)
	배우자 없음	143(97.5)	10(2.5)	71(17.5)	224(18.4)
거주지역	대도시	189(46.6)	189(46.7)	75(44.9)	560(46.1)
	중소도시	142(35.0)	139(34.3)	77(34.8)	422(34.7)
	농촌	75(18.5)	141(19.0)	82(20.2)	234(19.2)

## 2. 연령층별 삶의 만족도 및 사회적 자본

연령층별 삶의 만족도의 집단 차이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20~44세 연령집단이 2.95점으로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65세 이상은 2.74점으로 가장 낮았다. 사후검증결과 65세 이상의 삶의 만족도가 20~44세, 45~65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ANOVA 분석

항목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삶의 만족도	20-44 a	406	2.95	2.19	12.311***	c<b, a
	45-64 b	405	2.92	2.07		
	65세 이상 c	405	2.74	2.21		
	합계	1216	2.86	2.16		

\*p<.05, \*\*p<.01, \*\*\*p<.001

### 3. 연령층별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을 위해 투입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800 이하이며, 다중공선성을 판단하기 위한 공차한계는 모두 1 이하, VIF는 10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귀분석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별 회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20~44세 집단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델의 설명력은 14.3%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5.382$ ,  $p<.001$ ).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일반적 특성에서 주관적 경제상태( $\beta=.205$ ,  $p<.001$ ), 사회적 자본 변수는 신뢰( $\beta=.125$ ,  $p<.05$ ), 네트워크( $\beta=.113$ ,  $p<.05$ )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신뢰가 높을수록, 네트워크가 활발할수록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5~64세 집단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델의 설명력은 19.4%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8.142$ ,  $p<.001$ ). 일반적인 특성에서 주관적 경제상태( $\beta=.220$ ,  $p<.001$ ), 주관적 건강상태( $\beta=.154$ ,  $p<.01$ ), 월소득( $\beta=.175$ ,  $p<.01$ ), 사회적 자본 변수는 사회참여( $\beta=.152$ ,  $p<.01$ )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경제상태가 높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고, 월소득이 높으며, 가족·친구·이웃 관련 활동이나 단체활동에 참여를 많이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집단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델의 설명력은 20.0%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5.382$ ,  $p<.001$ ). 일반적인 특성에서 주관적 경제상태( $\beta=.248$ ,  $p<.001$ ), 주관적 건강상태( $\beta=.159$ ,  $p<.01$ ), 사회적 자본 변수는 신뢰( $\beta=.131$ ,  $p<.01$ )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가족·친구·이웃에 대한 신뢰나 제도나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3. 연령별 독립변수(인구사회학적 요인, 사회참여, 신뢰, 네트워크, 규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20~44세		45~64세		65세 이상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 $\beta$ )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 $\beta$ )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 $\beta$ )
인구 사회 학적 요인	Constant	5.676**		5.132**		5.627***	
	성별	-.270	-.040	.815*	.123	.003	.001
	직업유무	.033	.005	-.385	-.055	-.576	-.079
	최종학력	.157	.025	-.204	-.046	.131	.042
	주관적 경제상태	.962***	.205	1.052***	.220	1.315***	.248
	주관적 건강상태	.255	.053	.688**	.154	.656**	.159
	혼인상태	-.164	-.023	.780	.035	.588	.066
	월소득	.002	.067	.004**	.175	.001	.052
	거주지역	-.157	-.018	-.133	-.016	.036	.004
사 회 적 자 본	사회참여	.042	.092	.062**	.152	.007	.019
	신뢰	.049*	.125	.006	.015	.055**	.131
	네트워크	.056*	.113	-.036	-.061	.015	.025
	규범	.033	.029	.006	.005	-.042	-.038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		.143(.116)		.194(.169)		.200(.176)	
F		5.382***		7.850***		8.142***	

주: 성별: 남=1, 직업유무: 유=1, 거주지역: 도시=1

\* p<.05, \*\* p<.01, \*\*\* p<.001

##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각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과 함의를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연령집단을 20~44세, 45~64세, 65세 이상 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여 얻은 주요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사회적 자본에 따른 삶의 만족도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 평균은 노인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집단일수록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U자 곡선을 그리는 것(김의철, 2000; Angelini 외, 2012)과는 달리,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점점 낮아지는 하향곡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주경희, 2011; 박길성, 2004)와 동일한 것이다. 또한 OECD(2008)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노인 기대수명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의 만족도는 줄어들고 자살률은 높아지는 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노인 집단일수록 개인이 갖는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감소로 인해 사회적 상실감 및 소외감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삶의 만족도는 노년기의 수준에서 향상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즉 노년기가 되면서 급격히 감소할 사회적 자본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년기부터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준비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세 집단 모두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45~64세 연령층과 65세 이상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이 될수록 건강과 경제적 자원은 줄어든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안희정, 2000; 최균·이정남, 2007; 김철수·유성호, 2009; Bjornskov, 2003; Helliwell, 2006; Helliwell, 2008; Vemuri et al., 2011)와 동일한 것이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운동, 건강검진 지원 등 건강관리 방안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소득보장 방안으로는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20~44세의 경우 지속적인 고용유지와

더불어 젊었을 때부터 노후준비를 위해 미리부터 인생설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결혼을 앞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직장신입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퇴시기와 맞물리는 베이비붐세대인 45~64세는 노인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지속적인 고용제도의 개발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프로그램이 교육프로그램에 추가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베이비부머들의 노후설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추후 이러한 프로그램에 사회적 자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5세 이상의 경우 공적 연금제도가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통해 공공소득보장의 점진적 확대를 통한 경제적 안정을 유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일반 취업으로의 연계를 통해 경제적 문제와 건강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자본은 각 연령층별 삶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네트워크는 20~44세 집단에서, 사회참여는 45~64세 집단에서, 신뢰는 20~44세 집단과 노년집단에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네트워크의 경우 친구, 이웃, 직장, 단체 등과의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는 젊은 연령층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45~64세 집단의 경우 직장, 친목모임 등의 사회활동이 잦아지면서 사회참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뢰는 친구, 이웃, 직장, 단체 등과의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는 청년기와 가족, 친구, 이웃, 사회, 제도 등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노년기에 중요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20~44세 연령집단에서 네트워크가 많을수록(이미라, 2011), 노인의 경우 신뢰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정규, 2009; Helliwell, 2006)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사회복지측면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령별로 다르게 축적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고려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 연령별 과업에 따라 사람과 사람·사회·제도 등과의 관계를 통한 네트워크나 신뢰, 사회참여가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과 노인기에 이르러 특정 사회적 자본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를 한 시점에서만 고찰하고 있어 종단적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삶의 만족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패널자료



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젊은 시절에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노후에는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추적조사하는 것이 향후 개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패널자료의 구축과 이 자료의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순들은 미국 텍사스주립대(Univ. of Texas at Austin)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의 심리사회적 안녕, 노인가족, 노후준비, 사례관리, 재난약자, 고령화 사회에서 연령통합적 관점, 베이비부머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sdchung@ewha.ac.kr)

성민현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중이며, SSK 지원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연구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노인복지, 고용복지, 사례관리, 저출산·고령화이며, 현재 연령통합의 고령화 사회를 연구하고 있다.  
(E-mail: platan23@hanmail.net)

## 참고문헌

---

- 강현정(2009). 농촌 여성독거노인의 사회활동과 삶의 만족도.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pp.1-26.
- 권중돈, 조주연(2001).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pp.61-76.
- 김영범, 박준식(2004). 한국노인의 가족관계망과 삶의 만족도: 서울 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4(1), pp.169-185.
- 김의철, 박영신, 김명연, 이진우, 유호식(2000).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 발달, 5(1), pp.119-145.
- 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예순(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pp.150-169.
- 김준홍(2010). 사회적 자본, 신체활동 그리고 주관적 건강: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한 정책의 근거 모색. 보건과 사회과학, 28, pp.61-90.
- 김철수, 유성호(2009).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4), pp.51-73.
- 박길성(2002).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아세아연구, 45(2), pp.109-131.
- 박성복(2003). 노년 삶의 질 만족도 대한 주관적 요인의 평가. 한국행정논집, 15(2), pp.359-376.
- 박희봉(2002). 조직 내 사회자본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6(1), pp.221-237.
- 서지원(2006). 중고령기 건강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4(10), pp.133-144.
- \_\_\_\_\_(2008). 노년기 경제적 복지를 위한 사회투자정책의 방향: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pp.31-55.
- 신상식, 최수일(2010). 노년기 여가활동과 사회자본 및 삶의 만족 간의 관계. 호텔관광연구, 12(3), pp.173-189.
- 안희정(2000).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 관한 연구: 원주시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 8, pp.293-315.

- 이경숙(2011).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가족 기능이 중·노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16(4), pp.245-254.
- 이기홍(2005). 한국 노인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한국노년학, 25(3), pp.1-21.
- 이미라(2011).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42(4), pp.413-443.
- 이정규(2009). 삶의 만족감과 사회적 자본-시민적 참여, 신뢰, 사회적 자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2, pp.5-40.
- 이영현, 나영선, 김안국, 유한구, 김미란, 이재혁(2006),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1).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홍직(2009).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3), pp.25-42.
- 장유미(201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사회적 자본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2), pp.261-289.
- 정순돌(2003). 저소득 노인의 가족동거여부와 삶의 만족도. 한국가족복지학, 11, pp.59-79.
- 정순돌(2005). 사례관리실천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순돌, 이선희(2011), 노인 삶의 만족도 변화: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3개년(1994, 2004, 2008년) 결과비교. 한국노년학, 31(4), pp.1229-1246.
- 정순돌, 이현희(2012). 베이비붐세대의 삶의 만족도: 1998년과 2008년의 비교. 한국노인복지학, 55, pp.105-132.
- 정명숙(2005). 연령과 삶에 대한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4), pp.87-108.
- 정혜정, 김태현, 이동숙(2000).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0(2), pp.49-70.
- 주경희(2011). 사회참여노인의 활동수준과 삶의 질 - 성별과 연령 차이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42(2), pp.5-39.
- 최균, 이정남(2007). 노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의 지역별 특성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3, pp.79-101.
- 홍영란, 김태준, 현영섭, 소진광, 이승희(2007).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Angelini, V., Cavapozzi, D., Corazzini, L., Paccagnella, O.(2012). Age,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Europeans. *Soc Indic Res*, 105, pp.293-308.
- Aureli, E., Baldazzi, B.(2002). Unequal Perceived Quality of Life Among Elderly Italians: Different Satisfaction Levels In Selected Spheres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60, pp.309-334.
- Baker, W. (1990). Market Networks and Corporate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 pp.589-625.
- Bjornskov, C.(2003). The Happy Few: Cross-Country Evidence o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KYKLOS*, 56, pp.3-16.
-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a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 Burt, R. S.(2007). Brokerage and Closure: An Introduction to Social Capital. *Oxford Journals*, 23(5), pp.666-667.
- Chen, C.(2000). Aging and life satisfac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54(1), pp.57-79.
- Costa, D. L., Kahn, M. E.(2001). Understanding the decline in social capital, 1952-1998. *NBER Working Paper*, pp.82-95.
-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S95-S120.
- Cuypers, K., Krokstad, S., Holmen, T. L., Knudtsen, M. S., Bygren, L. O., Holmen, J.(2012). Patterns of receptive and creative cultural activities and their association with perceived health, anxiety, depression and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adults: the HUNT study, Norway.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66, pp.698-703.
- Diner, E. D., Emmons, R. A., Larwen, R. J.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49(1), pp.71-75.
- Fitzroy, F. R., Nolan, M. A., Steinhardt, M. F.(2011). Age, Life-Satisfaction, and Relative Income: Insights from the UK and Germany. *IZA Discussion*

Paper.

- Ford. K. L., Bryant. A. N., Kim. G.(2012). Age differences in satisfaction with and perceived benefit from mental health services: results from the collaborative psychiatric epidemiology survey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012. pp.1-10.
- Gabriel. Z., Bowling. A.(2004). Quality of life from the perspectives of older people. *Aging & Society*, 24, pp.675-691.
- Healy, T.(2005). *In Each Other's Shadow What has the impact of human and social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in Ireland?*.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 Helliwell, J. F.(2006). WELL-BEING, SOCIAL CAPITAL AND PUBLIC POLICY: WHAT'S NEW?, *The Economic Journal*, 116, pp.34-45.
- \_\_\_\_\_ (2008). *Lif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development*. 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 and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p.997-1873.
- Kudo. H., Kodama. H., Kodama. H., Watanabe. M., Hatakeyama. R., Fukuoka. Y. et al.(2007). Life satisfaction in older people, *Geriatr Gerontol Int*, 7, pp.15-20.
- Mammen. S., Bauer. J. W., Lass. D.(2009), Life Satisfaction Among Rural Low-Income Mothers: The Influence of Health, Human, Personal, and Social Capital, *Applied Research Quality Life*, 4, pp.365-386.
- Marcinkus. W. C., Whelan-Berry. K. S., Gordon. J. R.(2007). The relationship of social support to the work-family balance and work outcomes of midlife women. *Women In Mangement Review*, 22(2), pp.86-111.
- Newton. K.(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 pp.575-586.
- Ports, A.(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 Rev. Social*, 24, pp.1-24.
- Powdthavee. N.(2008), Putting a price tag on friends, relatives, and neighbours:

- Using surveys of life satisfaction to value social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27, pp.1459-1480.
- Pugno. M. Verme. P.(2012). *Life Satisfaction, Social Capital and Bonding-Bridging Nexu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 Putnam, R. D.(1995). Bowling Alone. *Journal of Democracy*, 6(1), pp.65-78.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Lachman. M. E., Röcke, C., Rosnick, C., Ryff, C. D.(2008). Realism and Illusion in Americans' Temporal Views of Their Life Satisfaction: Age Differences in Reconstructing the Past and Anticipating the Future. *Psychological Science* 19, pp.889-897.
- Lochner, K. Kawachi, I., Kennedy. B.(1999). Social capital: a guide to its measurement. *Health and Place*, 5, pp.259-270.
- Valenzuola. S., Park. N., Kee. K. F.(2009), Is There Social Capital in a Social Network Site?: Facebook Use and Colleague Student's Life Satisfaction, Trust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4(4), pp.875-901.
- Vemuri, A. W., Grove. J. M., Wilson. M. A., Burch Jr. W. R.(2011). A Tale of two scales: Evaluating the Relationship Among Life Satisfaction, Social Capital, Income, and the Natural Environment at Individual and Neighborhood Levels in Metropolitan Baltimore. *Environment and Behavior*, 43(1), pp.3-25.
- Worsch. C., Scheier. M. F.(2003). Personality and Quality of Life: The Importance of Optimism and Goal Adjustment. *Quality of Life Research*, 12, pp.59-72.
- World value survey. <http://www.worldvaluessurvey.org>  
\_\_\_\_\_. WVS 2005 Questionnaire(2005).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cited 2012 Oct 27]. Available from: <http://kosis.kr/>.

OECD 사회통계조사.

<http://www.oecd.org/social/socialpoliciesanddata/societyataglance2011-oecd-social-indicators.htm>

OECD Factbook 2008. <http://miranda.sourceoecd.org>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ELSA 2008 (Wave 4). 2010.

#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 A Comparison of Three Different Age Groups

**Chung, Soondool**

(Ewha Womans University)

**Sung, Min Hyun**

(Ewha Womans University)

---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life-satisfaction by three different age groups. Sampling method used for this study was by quota sampling considering residential district, age, and gender of the respondents. A total of 1,216 people were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participants were categorized in the following three different age groups: aged 20 to 44, aged 45 to 64, and aged 65 and over. Result showed that the elderly group had lower level of life-satisfaction than any other groups. Economic status appeared as a common variable to predict life satisfaction for all age groups. Life satisfaction was explained by different sub-dimensions of social capital in each age group. On the basis of results,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related to social capital and life-satisfaction were discussed.

---

**Keywords:** Life Satisfaction, Social Capital, Different Age Groups